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어머니 이야기

성공한 사람들은 통계학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스승을 어머니로 꼽는다. 가장 좋은 학교는 가정이라는 대답도 우선순위에 자리 잡고 있다.

오늘은 어머니, 나의 어린 시절의 어머니에 대한 추억들을 두어 개 옮겨와야겠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운동장에서 축구놀이하다 학교 교무실 유리창을 깨트린 사건이 벌어진다.

집은 가난했고 유리창 값이 걱정되어 주눅 든 아이에게 어머니는 방문을 잠그게 하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오늘 너에게 하는 말은 형이나 누나에게도 친구나 선생님에게도 비밀로 해야 한다. 어머니의 태몽이야기를 들려 줄 테니 굳게 믿고 정직하게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꿈이다. 내가 너를 잉태할 무렵 밤이 되면 꿈을 꾸는데 청룡, 황룡이 일주일동안 품안으로 날아들었고 마지막 날 밤 꿈에는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큰 목소리로 '이 아이가 장차 성장하면 전라도 절반이 이 아이의 몫이니라' " 이, 전라도 절반과 이 나라 절반의 엄청난 차이, 형제는 울고 있었지만 동생은 의문부호를 남기며 추억의 숲으로 어머니를 따라갔다.

역시 초등학교 때의 어린 시절 이야기이다. 어머니의 주머니에서 몇 푼을 꺼내 몰래 쓴 후 어머니와의 힘겨운 대면에서 있었던 일이다. 어머니의 회초리는 매섭다. 무조건 때리는 것이 아니라 조곤조곤 따지고 물어 잘못을 인정하면 잘못 저지른 만큼 회초리는 나의 종아리에 박혀왔다. 그날도 어머니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회초리를 준비해 오라고 말씀하셨다. 부엌에서 잘 부러질 회초리 두어 개를 골라 긴장된 모습으로 어머님 앞에 섰을 때이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치마를 무릎까지 걷어 올리며 회초리로 어머니의 종아리를 세차게 때리라는 것이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아이에게 어머니는 힘주어 또렷하게 그러나 슬픔이 담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용주야! 너는 착하고 똑똑한 아이다. 어머니가 가난해 아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용돈을 미리 살펴주지 못하셨다는 말씀이셨다. 그러므로 오늘은 비록 가난해 유리창 값 걱정으로 주눅 들어 있으나 내일은 전라도 절반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힘찬 설명이셨다.

어머니는 저게 부처님이십니다
불러보면 서러운 그 이름이여

해외에서 15년을 머문 후 어머니의 임종도 지켜볼 수 없었던 나는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어색하게 비밀스런 어머니의 태몽이야기를 넌지시 형에게 들려주었다. 머리만 깎지 않았으면 지금쯤 전라도 절반의 성주(城主)가 되어있을 사람이라며 얼굴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마음은 하염없이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울고 있었다.

그때 형이 미소를 머금고 말하였다.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는 형에게도 매우 은밀하게 비밀을 지키라며 태몽이야기를 들려주셨다는 것이다.

"너를 잉태할 무렵 밤이 되면 꿈속에 청룡, 황룡이 한 달 동안 어머니의 품안으로 날아드는데 마지막 밤의 꿈에는 하늘에서 우레와 같이 큰 목소리로 '이 아이가 장차 성장하면 이 나라 절반이 이 아이 몫이니라' " 하셨다는 것이었다. 일주일과 한 달의 차이, 전라도 절반과 이 나라 절반의 엄청난 차이, 형제는 울고 있었지만 동생은 의문부호를 남기며 추억의 숲으로 어머니를 따라갔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아이에게 어머니는 힘주어 또렷하게 그러나 슬픔이 담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용주야! 너는 착하고 똑똑한 아이다. 어머니가 가난해 아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용돈을 미리 살펴주지 못한 죄가 크구나. 어머니의 주머니에서 허락 없이 돈을 가져갈 때 아들의 마음고생은 얼마나 컸겠느냐. 아무리 어머니가 가난해도 아들의 마음고생하기 전에 용돈의 필요함을 대화로 풀어가지 못한 것은 어머니와의 대화 문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아들아, 가난하고 배고프고 헐벗고 필요한 물건이 많아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굳세게 정직한 노력으로 이겨내고 이루는 아름다운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용주는 향봉 스님의 호적에 담겨있는 이름이다. 나는 이제 늙디늙은 노승(老僧)이 되어 이 글을 쓰며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울고 있다.

어머니는 나에 있어 또 한분의 부처님이자 영원한 고향의 안식처이다. 인도와 네팔, 티베트와 중국에서 머문 15년은 길고 험한 고행자의 길이었다.

어머니의 교훈적인 말씀들은 해외까지 따라와서 언제나 버팀목이 되고 디딤돌이 되어 생명의 키를 키워주셨다. 어머니! 불러보면 서러운 게 이리도 많습니다. 어머니는 저에 있어 부처님이십니다.

선시게송으로 법을 전하다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중국의 절강성 가흥현(浙江省 嘉興縣)에 화정(華亭)이라는 곳이 있는데 사람들이 나룻배를 타는 곳이었다.

이곳에서 뱃사공 노릇을 하면서 지낸 스님이 있었다. 스님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뱃사공 형색으로 오가는 사람들을 배에 실어 강을 건네주기만 할 뿐이었다. 오랜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은 도인이 오후보림(悟後保任)의 은둔기를 보냈는지 모를 일이지만 사람들은 그를 '화정 선자' (華亭船子)라 불렀다. 화정선자에 대한 정확한 고증이 나타나지 않으나 여러 전등사(傳燈史)에 단편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법명은 덕성(德誠)으로 청원행사(靑原行思)계(系)의 법을 이은 약산유엄(藥山惟儼) 선사의 제자로 알려졌다. 그의 행적이 후세에 큰 감명을 남긴 것은 그가 쓴 절창(絶唱)의 선시 한 편 때문이다.

긴 낚싯줄 아래로 드리우니
한 물결이 일렁이자 수많은 물결이 잇따라 출렁인다. 밤은 고요하고 물은 찬데 고기가 물지 않아 빈 배에 달빛만 가득 싣고 돌아오누나.
(千尺絲綸直下垂 一波 動萬波隨 夜靜水寒魚不食 滿船空在月明歸)

나중에 이 게송이 공안(公案)으로 채택돼 '덕성천척' (德誠千尺)이라 하였다. 〈선문염송설화〉에는 이 송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였다. '천척의 낚싯줄' 이란 비단잉어(錦鱗)는 깊은 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천 자(尺)나 되는 낚싯줄을 드리워야 한다는 뜻을 제 1구가 가지고 있다 하였다. 고도의 상징적 은유로 '꼬리 붉은 비단 잉어' 가 나오며, 이를 낚으려면 모름지기 천척의 낚싯줄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무위의 큰 교화를 가리키는 것이라 하였다. '한 물결이 일렁이자 수많은 물결이 잇따라 출렁이다' 는 것은 낚시질로 인하여 물결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람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물결이다. 이것은 한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오음(五陰)과 삼계(三界)가 갖추어져 생사의 물결이 그치지 않고 세차게 솟구친다는 뜻이다. 다음 '밤은 고요하고 물은 차고 고기가 물지 않았다' 는 것은 제도할 중생이 하나도 없었다는 뜻이라고 하였다.

혹자는 이 게송의 낚으려 하는 물고기는 도를 비유한 것이라고 말한다. 〈오등회원〉에는 덕성의 또 다른 게송이 있다.

한 마리 물고기여! 너무 커서 손 쓸 수가 없구나.
모든 걸 포괄하니 참으로 기특하다.
변화에 능하여 바람, 우레 토해 내니
낚싯줄 드리운들 어떻게 낚으리오.
(有一魚兮偉莫裁 混融包納信寄哉 能變化吐風雷 下線何曾釣得來)

여기서 한 마리 큰 물고기는 도(道)의 광대함을 표현한 것이라 한다. 도는 없는 데가 없다. 불성이 온 우주에 두루 하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천지를 포괄하는 한 물건을 고기에 비유한 것이다.

숨어 은둔한 자취를 보여 준 화정 선자 덕성 스님도 그의 법이 '협산선회(夾山善會)' 스님에게 이어진다. 협산 스님은 〈벽암록(碧巖錄)의 책 제목에 인용된 벽암이란 말을 써 오도송을 읊었던 사람이다.

"원숭이는 새끼를 안고 푸른 산 뒤로 돌아오고 새는 꽃을 물어다 푸른 바위 앞에 떨어트리네."(猿抱兒歸靑 後 鳥啣花落碧巖前)

협산 스님이 도반이었던 도오(道吾) 스님의 권유에 의해 화정으로 덕성 스님을 찾아 갔다. 덕성 스님이 협산 스님을 보자마자 물었다.

"대덕은 어느 절에 머무르시오." "절에 머물지 않고 머문다면 곧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다는 것은 무엇과 같지 않다는 것인가?" "눈앞에 보이는 법과 같지 않습니다."

"한 언구의 합당한 말은 만겁에 나귀를 매는 말뚝이다. 천척(千尺)의 낚싯줄을 드리운 것은 깊은 연못의 바닥에 닿고자 함이다. 그대는 어떤가?"

협산 스님이 한참 생각하다 입을 벌리려 하자 노(櫓)로 때려 물속에 빠뜨렸다. 협산 스님이 겨우 배에 오르려 하자 또다시 "말해 봐"하고 노로 후려쳤다. 이때 협산 스님이 활연히 깨닫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본래 갖춘 마음이 바로 '부처'



진원 스님의 깨달음 찾는 〈금강경〉
㉖ 금강경의 참 뜻

마조 선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들에게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이다. 일체의 생활 일상에서 움직이고, 머물고, 앉고, 눕는 가운데에서 대상으로 파악되는 모든 것은, 어느 것도 얻을 수 없는 그저 이름뿐인데, 진여(眞如) 또한 어느 이름에도 속하지 않지만 그렇다 하여 이름이 없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름이 없는 것도 없다' 의 무무명(無無名)에 관해서 조사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름이 없는 것을 그 이름으로 불러주고, 모양이 없는 것을 그 모양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도가 도라는 이름 없이 그대로 머무는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 그러므로 지인(至人)은 네모에 머무를 때는 네모가 되고, 동그라미에 머무를 때는 동그라미가 되며, 하늘에 머무르면 하늘이 되고, 사람들 사이에 머무르면 사람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삼아승지겁(三阿僧祇劫)의 백천(百千)이나 되는 명호가 있는 것은, 때와 장소에 따라 이름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대상에 따라 그 색이 변하는 마니주(摩尼珠)와 같이 파란 색의 대상을 만나면 파랗게 되고, 노란 색의 대상을 만나면 노랗게 되지만, 그 본체는 아무런 색도 띄고 있지 않습니다. 손가락은 스스로 자신을 만질 수 없고, 칼은 스스로 자신을 자를 수 없으며, 거울은 스스로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없듯이, 그때그때의 때와 장소라는 조건을 따라 나타나는 대상에 각기 서로 다른 이름을 붙여 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허공과 그 수명이 같아서 설령 육도를 끊임없이 윤회하여 각양각색의 형체로 바뀌어 태어나도, 그 마음만은 결코 생겨나지도 멸하지도 않고 불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중생은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득 미혹한 마음을 일으켜 갖가지 업을 지어 그 과보를 받으며, 본성을 잃은 채 속세의 풍류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모에 머물면 네모가 되고, 사람에 머물면 사람이 되며, 파란 색을 만나면 파랗게 되고, 눈에 있으면 본다고 하고, 귀에 있으면 듣는다고 하며, 코에 있으면 냄새를 맡고, 혀에 있으면 맛을 보며, 몸에 있으면 움직이고 감촉을 느낍니다. 손가락은 스스로 자신을 만질 수 없고, 칼은 스스로 자신을 자를 수 없으며, 거울은 스스로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없는 것과 같이, 마음도 네모가 없으면 있을 수 없고, 파란 색이 없으면 있을 수 없으며, 손가락이 없으면 있을 수 없고, 눈이 없으면 마음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는 눈과 보이는 모양이 마음이고, 듣는 귀와 들리는 소리가 마음이며, 코와 냄새가 마음이고, 혀와 맛이 마음이며, 몸과 촉감이 마음이고, 생각과 생각의 대상이 마음입니다.

이와 같이 일체가 오직 한 마음이지만, 우리들은 마음을 보면서도 마음을 못 보고, 마음을 듣고 있으면서도 마음을 듣지 못하며, 마음을 맡고 있으면서도 마음을 모르고, 마음을 맛보면서도 마음을 모르고 있으며, 마음을 느끼면서도 마음을 모르고, 마음을 생각하면서도 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감촉을 느끼고, 생각을 할 때, 좋아하고 싫어하는 미혹한 분별심을 일으켜서 마음을 막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관자재보살이 색, 수, 상, 행, 식의 5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건너니라. 사리자여, 물질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물질과 다르지 않아 물질이 곧 공이요 공이 곧 물질이니, 밭음과 생각과 의지작용과 의식도 또한 그러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행위를 앎의 형식으로 축적하는 행위인 수, 상, 행, 식이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하는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끝〉

의료,복지,전법 구현의 대표종단 한국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사)한국불교조계종 종단 통일가사 점안법회 봉행

한국불교조계종은 미래불교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종단개혁과 혁신으로 불교 콘텐츠 다양화를 통해 한국불교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조계종은 정법수행을 일으켜 세우고 법계일탈이 만연하여 해체된 승가공동체 구현과 대중공의와 종도주권의 실현을 위해 종단의 체질을 최근 새롭게 바꾸고 종단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종도들이 다함께 원융회통을 통해 종단 법인설립 이래 최초로 전통 점안의례 통일가사 점안을 봉행하여 한국불교조계종의 승려 의제를 통일하고 법계제도를 새롭게정착 조계종 정체성 확립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조계종은 전법의 혁신과 종무행정의 전문성 강화로 종단발전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여 분열과 갈등과 반목을 청산하고 소외된 종도가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창의적인 종무행정을 공평무사하게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조계종은 종도들이 환골탈퇴하는 개혁을 통해 기계를 닮아가는 메마른 사회의 풍토에 깨달음의 영혼을 불어넣고 있는 종풍쇄신 운동을 진작시키고 있습니다.제방의 대덕큰스님과 전국에 계신 종도님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2017년 7월 1일

■ 입종서류 : 행장(이력서), 사진(반명함판) 1장, 사찰(내부, 외부) 사진, 주민등록등본
■ 모집기간 : 2017년 7월 1일부터 ~
■ 입종자격 : 종단통일가사 동참자 ※ 특혜 : (공덕 법계 인정)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장운 운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81, 831호 두산위브파빌리온 TEL : 02)720-8270, 02)2198-5022~4 FAX : 02)720-8271 H.P : 010-5432-0108(총무원장 운산), 010-4167-3666(사무총장 도광)
Http://jogyejong.or.kr E-mail:jonggyo119@hanmail.net

한국불교조계종 종단관련 유관단체 ·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복지재단 / Http://wbof.or.kr ·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 Http://kntga.or.kr ·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 / Http://kroa.or.kr · 종교세계신문사 / Http://jworldnews.com